

귀농·귀촌인의 갈등경험이 주민관계, 이주 만족도, 지역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 - 경상남도 의령군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

전미리
경기도농업기술원

The Effect of Conflict Experiences of Those Who Returned to Farming and Country Affected the Relation with Residents, Satisfaction of Movement and Community Participation Rate - The Case of Returned to Farming and Country of Uiryeong-gun, Gyeongsangnam-do -

Jun, Mi-Ri
Gyeonggi-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how the conflict experiences of those who returned to farming and country affected the relation with residents, satisfaction of movement, and participation rate in the community with 961 subjects that returned to farming and country in Uiryeong-gun.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15.6% of them experienced the conflicts with original residents.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experiencing conflicts by the type of movement. Those who returned to farming and country from urban areas showed more experiences of conflicts with original residents than those from Uiryeong or rural area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ose from urban areas on the detailed conflict case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he conflicts. Third, those who returned to farming and country with conflict experiences showed more negative perception on the relation with residents, and lower satisfaction level on their returning. Fourth,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conflict experiences and relation with residents, demonstrating lower satisfaction on the returning and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as they perceived the relation with residents more negatively. These study results can be utilized as the basic data to establish the future policies on the supports for settlement of returning to farming and country.

Key words : Return to Farming, Conflict Factor, Conflict Solutions, Type of Migration

I. 서론

건강한 삶, 도시의 복잡함에서의 탈출 등의 이유로 최근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갈망은 더욱 증가하고 있

다. 실제로 Mafra(2020)의 귀농·귀촌인 통계자료를 살펴 보면 귀농·귀촌 가구는 35만가구로 통계조사 이래 최대 치였으며, 특히 40대 이하의 청년층의 귀농·귀촌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귀농인구 증가의 배경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다양한 삶의 가치, 정부의 귀농 유도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Kim and Moon, 2013). 특히 귀농 관련 정책의 배경에는 도시가 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농촌 지자체

Corresponding author : Jun, Mi-Ri
Tel : +82-31-8008-9393
E-mail : jmr0403@gg.go.kr

는 지역에 감소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산 장려나 정착 자금의 지원에서부터 전원마을 조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귀농·귀촌정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Kim and Moon, 2013). 즉, 정부에서는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귀농·귀촌은 도시중심의 생활에서 탈도시화로 변화, 인구구성의 불균형 완화, 토지이용 및 생활환경 변화 등 농촌사회의 다양한 공간적 변화 모습을 보여준다(Oh, 2011). 특히 귀농·귀촌의 긍정적인 면은 산업구조의 편향적인 발전을 지양하게 하고 건전한 경제구조를 형성하게 하는 시발점이 되며, 귀농은 영농을 통해 정착하려는 일종의 새로운 직업선택 과정으로 건전한 삶과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과 유지를 수반한다(Park et al., 2006; Kim et al., 2004).

그러나 귀농·귀촌인의 증가는 지가상승, 주민 간 문화갈등, 지역공동체 와해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기도 한다. 사회적 이민이라 불리는 귀농·귀촌을 통해 농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하는 인구의 증가는 농촌이 공동화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농촌사회갈등 조장, 경영규모화의 축진을 억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으며(Ko and Kim, 2011), 특히 기존 향토주민으로 구성되어있던 농촌사회 구성원의 다변화를 야기하면서, 최근 이에 따른 기존 농촌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갈등이 새로운 농촌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Ahm, 2017).

귀농·귀촌인과 농촌원주민과의 갈등으로 귀농·귀촌인은 농촌마을에 정착하지 못하고 역 귀농·귀촌하거나 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한다. 실제로 Ma et al(2016)의 귀농·귀촌인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결과 귀농·귀촌인의 약 11.2%가 지역에 적응하지 못하고 역귀농 또는 타 지역으로 2차 귀농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Ma et al(2018)의 귀농·귀촌인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결과에서는 남아있는 귀농·귀촌인 중에서도 도시로의 재이주 의향이 10.6%, 다른 농촌으로의 재이주 의향이 17.2%로 조사되었다. 결국 원주민과의 갈등경험은 귀농·귀촌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원주민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는 지역사회 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귀농·귀촌인의 갈등경험이 이후 농촌생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구

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귀농·귀촌인의 갈등경험 유무와 그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귀농·귀촌인의 갈등경험여부가 주민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주민과의 관계가 이주 만족도와 지역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귀농·귀촌 갈등의 이해

갈등(葛藤)이라는 단어는 한자의 의미대로 칩과 등나무 덩굴이 서로 엉켜서 복잡한 형상을 이루고 있는 모양으로 쉽게 풀리기 어려운 상태를 뜻한다(Kim, 2011). 귀농·귀촌인이 농어촌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은 심리적·감각적·행동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Kim, 2011), 농촌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은 ‘귀농·귀촌인의 농촌마을 유입과정에서 주체(농촌원주민, 귀농·귀촌인) 간 나타나는 심리적 대립감과 대립적 행동을 내포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Ahm, 2017).

갈등은 유익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는 양면적 성격을 갖는다(Pondy, 1967). 귀농·귀촌인은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들어옴으로써 농촌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지역사회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닌다(Song, 2016). 갈등이 갖는 순기능으로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발견하고 인간 생활이 편리해지고 여가와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수 있다. 또는 조직 내에서 갈등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방안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를 위해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사회갈등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Kim and Park, 2019). 반대로 역기능으로는 갈등의 세력이 너무 강화되면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으며 목표나 가치를 훼손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Kim and Park, 2019).

Lee et al(2016)에 따르면 귀농·귀촌인과 농촌원주민 간의 갈등의 주된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째는 마을 발전 방향 및 운영방식 차이와 같은 목표의 차이, 둘째는 집이나 토지 등과 같은 재산권 침해 및 영농방식의 차이 등 희소자원의 획득경쟁이 원인이 되고 있다. 세 번째는 마을 일이나 모임의 참여문제 등 의사소통의 차이, 네 번째로는 농촌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원주민들의 도시문화 이해부족, 귀농·귀촌인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 등의 지각의 차이가 원인이 되고 있다.

2. 관련 선행연구

지금까지의 귀농·귀촌인의 갈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와 갈등의 특성을 파악하는 기초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귀농·귀촌인의 갈등의 원인으로 Park and Choi(201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촌 원주민이 생각하는 귀농·귀촌인 증가에 따른 부정적인 변화로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다는 응답이 다수였으며, Ma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과의 갈등 원인에 대해 귀농·귀촌인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 집이나 땅 문제 등이 재산권 침해, 농촌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Kim and Park(2019)의 연구에서는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각각의 갈등유발 요인수준을 분석하였는데, 원주민 갈등유발요인에서는 ‘농촌지역과 다른 도시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태도’가 갈등유발원인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귀농·귀촌인 갈등유발원인에서는 ‘마을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태도’가 가장 강한 갈등원인이라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귀농·귀촌인의 주된 갈등 원인은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의 서로 간의 문화차이를 이해하지 못함에서 유발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원주민의 경우는 텃세로, 귀농·귀촌인의 경우는 강한 자기주장의 모습으로 서로에게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갈등으로 귀농·귀촌인은 이주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다시 도시지역으로 돌아가기도 하는데, Yoon et al(2017)의 연구에 의하면 귀농·귀촌인중 다른 농촌으로의 이주한 경우가 4.3%, 역귀농·귀촌으로 도시로 이주한 경우가 6.8%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귀농·귀촌인의 갈등의 특성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Ahn(2017)에 의하면 농촌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은 주로 역기능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농촌공동체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갈등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Cho and Cho(2013)의 연구에 의하면 원주민의 일부는 귀농·귀촌인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귀농·귀촌인과 농촌원주민 간의 갈등은 면대면 갈등관계이기도 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 귀농·귀촌인 개인과 마을공동체 간의 갈등관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갈등관계에서는 개인이 원주민의 배경에 존재하는 권력을 인지함으로써 갈등 해결과정에 그 행위가 제약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개인 간 이해와 관련된 문제조차도 합리적인 갈

등해결보다는 상대방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지속함으로써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합리적 조정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개인의 이해문제 해결에는 보통 자원의 이용이나 배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지만 폐쇄된 사회 또는 공동체적 속성이 강한 집단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차별을 갈등관리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집단 구성원의 비합리적 인식이 작동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농·귀촌인과 그의 정착지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원주민과의 갈등관계를 조정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매개자가 없기 때문에 갈등은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Ma and Moon, 2012). 그렇기 때문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동화를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 관리 기구를 두어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해야 한다(Han and Han, 2018).

앞서 살펴보았듯이 귀농·귀촌인이 겪는 원주민과의 갈등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도 않으며, 갈등의 원인 및 특성을 파악하는 정도의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실제로 귀농·귀촌인과 농촌지역 원주민 간의 갈등경험에 대한 사회적 특징에 관한 연구나, 원주민과의 갈등경험이 귀농·귀촌인의 이주 만족도, 지역주민과의 관계와 지역사회 참여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한계에서 나아가 귀농·귀촌인의 갈등경험의 인구학적 특성과 만족도, 주민관계, 지역사회 참여 정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조사대상자는 모집단의 대표성과 자료수집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귀농인과 귀촌인의 각각의 분포도가 가장 많거나 가장 적지 않고 비교적 평균적인 분포를 보이는 경남지역에서도 의령군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의령군에서 귀농귀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의령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만19세 이상 의령군으로 이주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자기기입식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기기입식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하였다. 설문기간은 2019년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19일

Table 1. Items in the questionnaire

Category	Detailed items	Cronbach's α
Conflict Experience	Conflict experience, main conflict factors, conflict resolution methods	-
Resident Relationship	I believe in the people, Residents care about me, Residents help with housework and farming, villagers avoid me, Residents are very interference	0.748
Migration Satisfaction	overall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economic conditions,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residential area, Neighborhood relationship satisfaction, Health satisfaction, Local infrastructure satisfaction	0.773
Community Participation	overall community participation, village conference and events, village farming economic activities, a local farmers' organization, a social organization, religious activities, a regional committee, community volunteering, club activities, a gathering or event for Returned Farmers and Rural Areas	0.815
A General Characteristic	Gender,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Migration characteristics, Migration pattern, Migration Decision	-

동안 수집되었다.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거하고 총961부의 유효 표본을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크게 주민과의 갈등여부, 주민과의 관계, 이주 만족도, 지역사회 참여 4파트로 구분된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여부로 갈등경험 여부, 주된 갈등 요인, 갈등 해결방법이 조사되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마을 주민과의 관계로 주민이 의지됨, 마을주민이 걱정과 관심을 줌, 농사일을 도움을 줌, 따돌리지 않음, 간섭하지 않음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파트는 이주 만족도로 경제여건, 주거환경, 거주지역, 이웃관계, 건강, 지역인프라, 전반적인 만족도로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네 번째 파트는 지역사회 참여도로 마을 회의나 행사, 마을 영농 경제활동, 지역사회 자원봉사, 동호회 및 여가 문화 활동, 지역 농민단체, 친목단체, 종교활동, 지역 위원회,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로 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각 변수의 개별 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였고, Cronbach's α 값이 마을 주민과의 관계가 0.748, 이주 만족도가 0.773, 지역사회 참여도가 0.815로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자료 분석

통계절차는 SPSS Statistics ver. 23.0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귀농·귀촌인의 갈등경험과 각 요인의 영향관계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몇 단계의 통계 절차를 수행하였다. 첫째, 각 요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의령군으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셋째, 갈등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분류하여 두 그룹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 주민과의 관계, 이주 만족도, 지역사회 참여정도를 비교하였다. 넷째, 회귀분석을 통하여 각 요인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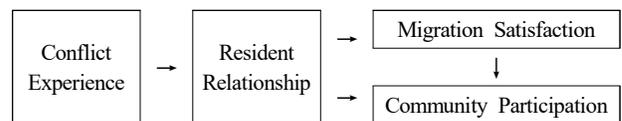


Figure 1. Study Model

IV. 분석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57.0%(548명), 여자가 43.0%(413명)로 남자가 조금 더 많았으며, 혼인상태로는 기혼자가 87.8%(844명)로 미혼 12.2%(117명)에 비하여 많았다. 연령대로는 60대 이상이 39.8%(382명), 50대가 28.0%(269명)로 과반수로 많았다. 40대가 15.1%(145명), 30대가 11.7%(112명), 20대가 5.5%(53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38.1%(366명), 대학교 졸업 이상이 34.9%(355명), 중학교 졸업 이하가 27.1%(260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는 귀촌인이 82.6%(794명)로 대부분이었으며, 귀농인은 17.4%(167명) 수준이었다.

2. 갈등경험의 원인 및 특성

가. 갈등경험의 원인 및 해소방법

응답자중 갈등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15.6%(150명)로 조사되었다.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는 귀농·귀촌에 대한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ategory		Frequency	Percent(%)	Category		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548	57.0	Education level	Under Middle School Graduation	260	27.1	
	female	413	43.0		A High School Graduation	366	38.1	
Age	twenty	53	5.5		A College Graduation	355	34.9	
	thirty	112	11.7	Returning Farmer	167	17.4		
	forty	145	15.1	Returned rural people	794	82.6		
	fifty	269	28.0	Migration Pattern	A native of Uiryeong	A native of one's hometown	295	30.7
	all over sixty	382	39.8		From another village	51	5.3	
Marital status	Single	117	12.2		From other regions	A native of the countryside	159	16.5
	Married	844	87.8	A native of a city	456	47.5		

선인견과 텃세라는 응답이 39.3%(59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집 땅 문제 등의 재산권 침해가 28.0%(42명)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마을 일 운영 방식 및 모임참여가 16.0%(24명), 농촌과 도시적 생활방식 차이가 12.0%(18명), 영농 방식의 차이가 2.0%(3명), 기타가 2.7%(4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갈등해소 방법으로 46.7%(70명)가 특별히 한 것이 없다는 응답을 하였다, 친한 지역 주민에게 상담한다는 응답이 14.7%(22명), 지역 기관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13.3%(20명), 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에게 상담한다는 응답이 9.3%(14명), 인터넷 검색 등 온라인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5.3%(8명), 귀농·귀촌한 선배나 동료와 상담한다는 응답이 4.7%(7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많은 귀농·귀촌인이 지역주민들이 귀농·귀촌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가 갈등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이나 이장 등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히 한 것이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아 귀농·귀촌인들은 지역 주민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다소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Ahn(2017)의 갈등해소방안으로 서로 모른척하고 지낸다거나 갈등을 들어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결했다는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나

Table 3. Conflict Experience

Category		Frequency	Percent(%)
Conflict Experience	Yes	150	15.6
	No	811	84.4

Table 4. Conflict Factor and Conflict Resolution

Category		Frequency	Percent(%)	Category		Frequency	Percent(%)
Conflict Factor	Total	150	100.0	Conflict Resolution	Total	150	100.0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such as land issues	42	28.0		Consultation with seniors and colleagues who have returned to farming	7	4.7
	Differences between rural and urban lifestyles	18	12.0		Consultation with friendly local residents	22	14.7
	How to operate village work and participate in meetings	24	16.0		Consultation with the village head and women's president	14	9.3
	Differences in farming methods	3	2.0		Online use such as internet search	8	5.3
	preconceived notions of Returned Farmers	59	39.3		Utilization of local institutions	20	13.3
	Etc	4	2.7		do nothing	70	46.7
			Etc	9	6.0		

타났다. 때로는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지나치게 소극적 대처로 갈등이 깊어질 경우 갈등을 관리하기에 더욱 어려워지므로 각 갈등요인별 구체적인 갈등관리 사례조사 등 관련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나. 갈등경험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차이

갈등경험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해보았으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이주 특성(귀농, 귀촌)에 따라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혼인여부와 이주형태에서 갈등경험에 따른 분포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먼저 혼인여부에서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갈등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형태에서는 의령출신의 고향마을 출신, 의령출신의 타 마을 출신, 타 지역 농촌출신, 타 지역 도시출신의 순으로 갈등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의령출신의 고향마을로 귀농·귀촌한 응답자도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타 지역출신자가 갈등 경험에 더욱 많았으며 특히 타 지역 도시출신인 경우가 가장 갈등 경험에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지속적으로 귀농·귀촌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타 지역 특히 도시출신의 농촌이주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갈

등을 겪는 귀농·귀촌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Han & Han(2018)의 연구결과와 같이 30~50대의 귀농·귀촌인 비율이 늘어나는 것에 반하여 농촌지역의 평균연령대는 60대 이상이라는 점은 단순히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의 갈등 이외에도 세대 간의 갈등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정책지원과 갈등의 관리를 위한 방법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 갈등경험에 따른 이주의사

갈등경험에 따른 이주의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도를 보였다. 갈등경험이 있는 집단일수록 이주의사가 갈등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갈등경험이 있는 집단의 이주형태에 따른 이주의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의령출신에서도 고향마을 출신의 귀농·귀촌인의 이주의사는 20.7%(6명) 수준이었으나, 의령출신 타 마을 출신의 경우 28.6%(2명), 타 지역출신의 농촌출신이 37.5%(9명), 도시출신이 34.4%(31명)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향이 농촌인 귀농·귀촌인보다 도시출신의 귀농·귀촌인의 역귀농·귀촌 의향이 높게 나타난 Ma et all(20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연구 결과이다.

Table 5. Difference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conflict experiences

Category		Conflict Experience		x ² (p)	Category		Conflict Experience		x ² (p)	
		Yes	No				Yes	No		
Gender	male	78 (14.2)	470 (85.8)	1.831 (0.179)	Education level	Under Middle School Graduation	31 (20.7)	229 (28.2)	3.708 (0.157)	
	female	72 (17.4)	341 (82.6)			A High School Graduation	63 (42.0)	303 (37.4)		
Age	twenty	6 (11.3)	47 (88.7)	5.806 (0.214)		Migration characteristics	A College Graduation	56 (37.3)		279 (34.4)
	thirty	13 (11.6)	99 (88.4)		Returning Farmer		25 (15.0)	142 (85.0)		
	forty	22 (15.2)	123 (84.8)		Returned Rural People	125 (15.7)	669 (84.3)			
	fifty	53 (19.7)	216 (80.3)		Migration Pattern	A native of Uiryong	A native of one's hometown	29 (9.8)	266 (90.2)	13.546** (0.004)
	all over sixty	56 (14.7)	326 (85.3)			From other regions	From another village	7 (13.7)	44 (86.3)	
Marital status	Single	9 (7.7)	108 (92.3)	6.338* (0.012)	From other regions	A native of the countryside	24 (15.0)	135 (85.0)		
	Married	141 (16.7)	703 (83.3)			A native of a city	90 (19.7)	366 (80.3)		

*p<0.05 **p<0.01

Table 6. Differences in Migration Decision by Conflict Experience

Category		Migration Decision		x ² (p)
		Yes	No	
Conflict Experience	Yes	48(32.0)	102(68.0)	36.916** (0.000)
	No	101(12.5)	710(87.5)	

*p<0.05 **p<0.01

Table 7. Differences in Migration Decision with Migration Pattern

Category			Migration Decision		x ² (p)
			Yes	No	
Migration Pattern	A native of Uiryeong	A native of one's hometown	6(20.7)	23(79.3)	2.323 (0.508)
		From another village	2(28.6)	5(71.4)	
	From other regions	A native of the countryside	9(37.5)	15(62.5)	
		A native of a city	31(34.4)	59(65.6)	

*p<0.05 **p<0.01

3. 갈등경험 및 이주특성에 따른 집단 간 특성 분석

가. 갈등경험 및 이주특성에 따른 주민과의 관계 분석

갈등경험 유무에 따른 주민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보였다. 지역주민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나를 걱정해 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항목에서 갈등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으며, 평소 집안일이나 농사일을 도와준다는 항목은 두 집단 모두 부정적이나 갈등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 점수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인이라고 따돌린다는 항목과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항목은 모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보였으나, 갈등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평균 점수가 더욱 낮아 갈등경험이 없는 집단이 갈등 경험에 있는 집단보다 주민들이 따돌리거나 간섭을 한다고 느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주특성에 따른 주민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귀농인이 귀촌인보다 주민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역주민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항목과 나를 걱정해 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항목에서 귀농인이 평균 3.4이상으로 지역주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갈등경험 및 이주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만족도 분석

갈등경험 유무에 따른 귀농·귀촌 만족도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역인프라 만족도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갈등경험이 있는 집단이 갈등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귀농·귀촌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제여건 만족도에서 갈등경험이 있는 집단은 평균 2.86으로 갈등경험이 없었던 집단의 3.12

Table 8. Differences in Resident Relationship by Conflict Experience and Migration characteristics

Category	Conflict Experience		t(p)	Migration characteristics		t(p)
	Yes	No		returned to farming	returned to country	
I believe in the people	2.80	3.25	-5.077**(0.000)	3.43	3.12	3.567**(0.000)
Residents care about me	2.86	3.28	-4.514**(0.000)	3.49	3.15	3.767**(0.000)
Residents help with housework and farming	2.40	2.63	-2.195*(0.028)	2.91	2.52	3.795**(0.000)
villagers avoid me	3.64	4.55	-12.503**(0.000)	4.55	4.38	2.326**(0.020)
Residents are very interference	3.48	4.56	-14.900**(0.000)	4.41	4.38	0.408

*p<0.05 **p<0.01

Table 9. Differences in Migration Satisfaction by Conflict Experience and Migration characteristics

Category	Conflict Experience		t(p)	Migration characteristics		t(p)
	Yes	No		returned to farming	returned to country	
overall satisfaction	3.00	3.43	-5.661**(0.000)	3.35	3.36	-0.187
Satisfaction with economic conditions	2.86	3.12	-3.365**(0.001)	2.95	3.11	-2.084*(0.025)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3.14	3.41	-3.017**(0.003)	3.28	3.39	-1.274
Satisfaction with residential area	3.16	3.41	-2.981*(0.012)	3.37	3.37	-0.017
Neighborhood relationship satisfaction	2.62	3.70	-12.891**(0.000)	3.72	3.49	2.869*(0.004)
Health satisfaction	3.30	3.51	-2.471*(0.014)	3.46	3.48	-0.244
Local infrastructure satisfaction	3.74	3.65	1.108(0.268)	3.70	3.65	0.561

*p<0.05 **p<0.01

보다 낮았으며, 이웃관계 만족도 항목에서 갈등 경험이 있는 집단이 2.62, 갈등경험이 없는 집단은 3.7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거환경 만족도와 거주 지역 만족도의 경우 두 집단 모두 평균 3.0이 넘어 낮은 만족도를 보이지만 갈등경험이 없는 집단이 동일하게 평균 3.41로 갈등경험이 있는 집단의 3.14, 3.16보다 더욱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 만족도 역시 갈등경험이 없는 집단이 평균 3.51, 갈등경험이 있는 집단이 평균 3.3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갈등경험이 없는 집단이 평균 3.43, 갈등경험이 있는 집단이 평균 3.00로 갈등경험이 없는 집단이 더욱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주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만족도의 평균차이 분석에서는 경제여건 만족도에서는 귀농인들의 만족도 2.95보

다 귀촌인들의 만족도가 3.11로 더 높았지만, 이웃관계 만족도에서는 귀농인들의 만족도 3.72로 귀촌인들의 3.49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 갈등경험 및 이주특성에 따른 지역사회 참여도 분석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도는 평균 1점대로 모든 항목에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가지 항목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갈등경험이 있는 집단이 지역사회 자원봉사와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도가 갈등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항목 모두 평균 1점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긴 하였으나, 참여도는 저조하였다. 이주특성에 따른 지역사회 참여도의 평균차이를 살펴본 결과 귀농인과 귀촌인 모두 지역사회

Table 10. Differences in Community Participation by Conflict Experience and Migration characteristics

Category	Conflict Experience		t(p)	Migration characteristics		t(p)
	Yes	No		returned to farming	returned to country	
overall community participation	1.51	1.44	1.279(0.201)	1.81	1.38	7.864**(0.000)
village conference and events	2.05	2.04	0.102(0.919)	2.91	1.86	10.942**(0.000)
village farming economic activities	1.22	1.27	-0.830(0.407)	1.73	1.17	6.686**(0.000)
a local farmers' organization	1.22	1.19	0.570(0.569)	1.62	1.11	6.585**(0.000)
a social organization	1.51	1.63	-1.373(0.170)	1.74	1.26	5.389**(0.000)
religious activities	1.56	1.39	2.104(0.067)	1.36	1.43	-1.051
a regional committee	1.44	1.33	1.482(0.139)	2.00	1.53	5.074**(0.000)
community volunteering	1.65	1.40	3.286**(0.008)	1.79	1.37	5.055**(0.000)
club activities	1.60	1.61	-0.088(0.930)	1.74	1.58	2.038*(0.042)
a gathering or event for Returned Farmers and Rural Areas	1.30	1.14	3.375*(0.011)	1.36	1.12	3.706**(0.000)

*p<0.05 **p<0.01

참여도는 낮은 편이나 귀농인의 경우 종교 활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사회 활동에 대하여 귀촌인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귀농인의 경우 농사를 짓는 과정 중에서 작목반, 지역 농민회 등의 단체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있거나, 마을 회의 및 행사 등 지역사회 활동 참여가 농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4. 갈등경험, 주민관계, 이주 만족도, 지역사회 참여도 간의 영향관계 분석

가. 갈등경험이 주민관계에 미치는 영향

갈등경험이 지역주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갈등경험이 있는 집단을 1, 갈등경험이 없는 집단을 0으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 하였다. 회귀모형은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따라서 독립변수인 갈등경험이 종속변수인 주민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값 = -8.460). 결론적으로 갈등경험이 있을수록 지역주민과의 관계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주민관계가 이주 만족도 및 지역사회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주민관계가 이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모형은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따라서 독립변수인 주민관계가 종속변수인 이주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값 = 13.306). 주민관계가 지역사회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모형은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따라서 독립변수인 주민관계가 종속변수인 지역사회 참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값 = 9.836). 결론적으로 주민관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이주 만족도 및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도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이주 만족도가 지역사회 참여도 및 주민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주 만족도가 지역사회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모형은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따라서 독립변수인 귀농·

Table 11. The Effect of Conflict Experience on Resident Relationship

independent variable	subordination variable	standard error	β	t	significance probability	statistics value
Conflict Experience	constant	0.034		3.342	0.001	$R^2 = 0.069$ $F = 71.564$, $p = 0.000$
	Resident Relationship	0.086	-0.264	-8.460	0.000	

* $p < 0.05$ ** $p < 0.01$

Table 12. The Effect of resident relationship on Migration Satisfaction

independent variable	subordination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nificance probability	statistics value
		B	standard error	β			
Resident Relationship	constant	-1.046E-17	0.030		0.000	1.000	$R^2 = 0.156$ $F = 177.037$ $p = 0.000$
	Migration Satisfaction	0.395	0.030	0.395	13.306	0.000	

* $p < 0.05$ ** $p < 0.01$

Table 13. The Effect of resident relationship on Community Participation

independent variable	subordination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nificance probability	statistics value
		B	standard error	β			
Resident Relationship	constant	5.586E-17	0.031		0.000	1.000	$R^2 = 0.092$ $F = 96.753$ $p = 0.000$
	Community Participation	0.303	0.031	0.303	9.836	0.000	

* $p < 0.05$ ** $p < 0.01$

귀촌 만족도가 종속변수인 지역사회 참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_{값} = 7.511$). 결론적으로 이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참여도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 만족도가 지역주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 하였다. 회귀모형은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따라서 독립변수인 귀농·귀촌만족도가 종속변수인 주민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_{값} = 10.311$). 결론적으로 이주 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지역주민과의 관계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주 만족도가 주민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주민관계가 이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등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귀농·귀촌 정책을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농촌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갈등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교육, 마을행사 지원 등을 통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귀농·귀촌인이 겪고 있는 갈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본 연구는 귀농·귀촌인의 갈등 경험이 주민관계, 이주 만족도, 지역사회 참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귀촌인의 15.6%가 원주민과의 갈등을 경험하였으며, 주된 갈등의 이유로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텃세와 집 땅 문제 등의 재산권 침해라는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의 해소방법으로 기관을 활용하거나 이장과 상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아 갈등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이주형태에 따른 갈등경험의 차이가 있었다. 의령출신보다는 타지역출신이 갈등경험이 더욱 많았고, 타 지역출신 중에서도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귀농·귀촌한 응답자의 갈등경험이 더욱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갈등경험 여부에 따른 이주이사의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갈등경험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타 지역으로의 이주이사는 32.0%로 갈등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12.5% 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로 얻은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의 주된 갈등원인이 생활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점과 갈등해소를 위한 대처방법이 다소 소극적이라는 부분은 귀농·귀촌인의 갈등을 연구했던 기존 선행연구(Ahn, 2017; Ma et al, 2016; Lee et al, 2016)와 유사한 결론이다.

셋째, 갈등경험이 있었던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주민과의 관계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이주 만족도 역시 갈등을 경험한 집단의 평균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민과 농사라는 공통요인을 가지고 있는 귀농인의 경우 귀촌인보다 상대적으로 주민관계나 지역사회 참여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넷째, 각 요인의 영향관계를 파악한 결과 갈등경험은 주민과의 관계에 부의 영향관계가 있었으며, 주민관계와 이

Table 14. The Effect of Migration Satisfaction on Community Participation

independent variable	subordination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nificance probability	statistics value
		B	standard error	β			
Migration Satisfaction	constant	1.049E-16	0.031		0.000	1.000	R ² = 0.056 F = 56.415 p = 0.000
	Community Participation	0.236	0.031	0.236	7.511	0.000	

*p<0.05 **p<0.01

Table 15. The Effect of Migration Satisfaction on Resident Relationship

independent variable	subordination variable	standard error	β	t	significance probability	statistics value
Resident Relationship	constant	-1.239		-9.992	0.000	R ² = 0.099 F = 106.317, p = 0.000
	Migration Satisfaction	0.368	0.316	10.311	0.000	

*p<0.05 **p<0.01

주 만족도는 지역사회 참여도에 양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갈등을 경험하지 않은 주민이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이주 만족도와 지역사회 참여도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주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민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나타나 주민관계와 이주 만족도는 서로 간 영향을 주고받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갈등의 경험이 결국 지역주민과의 관계, 이주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며 나아가 지역사회 참여도 저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단순히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법 위주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연구결과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같은 지역 출신 또는 농촌지역 출신의 귀농·귀촌인 보다는 도시지역 출신의 귀농·귀촌인의 갈등경험이 더욱 많았던 만큼 도시출신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갈등관련 교육 및 대처방법 등 보다 세부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갈등을 경험한 귀농·귀촌인의 갈등 해소를 위한 대처가 매우 소극적인 점은 향후 갈등을 해소 하지 못할 경우 이주 만족도가 저하되고,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해소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농사라는 원주민과의 공통요인을 가지고 있는 귀농인에 비하여 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도가 더욱 저조하며, 귀촌인의 비율이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귀촌인이 농촌 지역공동체에 융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귀농·귀촌인인이 겪는 갈등경험에 집중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갈등 대처방법에 따른 차이 및 갈등 해소 이후의 이주 만족도와 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Ahn, M. j.(2017). The Recognition of Conflict between rural Residents and Urban-to-Rural Migrants based on Changes of Rural Society,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Seoul
- Cho, Y. J. and Cho, E. J.(2013). An Analysis on the Actual State of the Settlement and the Community of people returning to rural area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Rural Planning, 19(4), 191-202
- Han, G. U. and Han, H. O.(2018). Urban-to-Rural Migration and Rural Resident Assimilation Measures, Cooperative Economics and Management Review, 48, 1-28
- Ko, S. H. and Kim, D. H.(2011). Analysis of Trainee's Characteristics & Satisfaction on Education for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in Jeju,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18(4), 983-1010
- Kim, C. K.(2011).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Tasks for Korean Local Food, Journal of social Research, 12(1), 111-133
- Kim, S. S., Cheong, J. W., Lim, H. B., Koh, W. M., Kim, J. T. and Lee, S.(2004). Direction of Program Development for Supporting U-turn Farmers' Rural Settlement, Korean Association of Agricultural Extension, 11(1), 53-65
- Kim, S. R. and Moon, S. T.(2013). The Study of Comparison in Perceived Quality of Life Before and After Returning to the Rural Areas,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40(3), 841-863
- Kim, T. K. and Park, S. H.(2019).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Strategies for Conflict Resolution between Rural Residents and Urban-to-Rural Migran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2), 151-163
- Kim, Y. G.(2011). Understanding and Conflict Management of Community Projects, Publishing Haenam, Korea.
- Lee, S. I., Ahn, M. J. and Kim, Y. G.(2016). The Perception Gap about Conflict Factors and Solutions Experience of Returning to Farm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2(2), 77-87
- Mafra(2020). A Study on Actual Conditions of the Return-Farm & Return-Rural. Korea.
- Ma, S. J., Nam, K. C., and Choi, Y. J.(2016). Intention of Returning to Urban Area ; Urban-to-Rural Migrant, The Korea Rural Sociological Society, 26(1), 37-63
- Ma, S. J., Park, D. S., An, S., Hwang, J. I. and Nam, G. C.(2018). Long-term follow-up of settlement status of returnees to farming and rural areas: 5th year(2018), KREI, 1-190.
- Ma, S. J., Park, D. S., An, S., Choe, Y. J. and Nam, G. C.(2016). Long-term follow-up of settlement status of returnees to farming and rural areas: 3th year(2016), KREI, 1-90.
- Ma, G. R. and Moon, T. H.(2012). An Evaluation of

전미리

- the Role of Shihwa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as a Coordinator for Conflict Resolution,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16(2), 161-181
16. Oh, S. H.(2011). Research Trend in Urban-to-Rural Migration: Focusing on Korean Literature from 1996 to 2010,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4(2), 77-90
17. Park, G. J., Yoon, S. D. and Kang, K. H.(2006). Factors Effecting on the Rural Life Satisfaction of Returners to the Farm After Retirement,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Rural Planning*, 12(4), 63-76
18. Park, S. H. and Choi, Y. U.(2014). Factors for City People's Return to Rural Areas and its Impacts on Korean Rural Society and Economy,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9. Pondy, L. R.(1967). *Organizational Conflict, Concepts and Models*, *Administration Science Quarterly*, 12, 296-320.
20. Song, I. H.(2016). A Study on the Factors of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Types between Return Migrants and Long Residents based on Rurality, *Korean Regional Sociology*, 17(3), 31-65
21. Yoon, S. D., Choi, J. S., Ma, S. J. and Nam. K. C.(2017). Urban-Rural Migrant, Outmigration; Panel Study, *The Korea Rural Sociological Society*, 27(1), 59-93.
-
- Received 6 July 2022
 - First Revised 8 August 2022
 - Finally Revised 21 August 2022
 - Accepted 30 August 2022